

2019년 졸업자 취업률 최종 결과 보고

1. 2019년 졸업자 취업률

2021. 1. 12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발표

구 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2019				2018		2017		
		전체 취업자	취업구분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외국인	미취업자	미취업자 상세분류				취업률 (진학률)	전년 비교	유지취업률	전년 비교	취업률	유지 취업률	취업률	유지 취업률
			직장건보 가입자	해외취업&프리랜서						취업확정	구직활동	진학/공무원준비	기타(사역)								
성서학	60	14	13	1	17	4	2	2	21	0	15	2	4	40.0% (28.3%)	▼7.5%	54%	▼12.7%	47.5% (28.3%)	66.7%	62.1% (20.4%)	71.4%
사회복지학	74	41	36	5	2	1	4	1	25	0	18	5	2	62.1%	▲0.7%	82%	▲6.3%	61.4%	75.7%	66.7%	73.2%
영유아보육학	46	40	40	0	0	0	1	4	1	0	1	0	0	97.6%	▼2.4%						
컴퓨터 소프트웨어학	19	14	11	3	0	0	0	0	5	0	5	0	0	73.7%	▼7.8%	82%	▲1%	81.5%	81%	73.7%	78.6%
간호학	47	40	40	0	0	0	0	0	7	7	0	0	0	85.1%	▼4.0%	85%	▼5.2%	89.1%	90.2%	95.5%	82.9%
전체	246	149	140	9	19	5	7	7	59	7	39	7	6	71.6% (7.7%)	▼1.3%	80%	▲0.7%	72.9% (7.9%)	79.3%	76.8% (6%)	76.4%

* 2019년 졸업자 246명 (2019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 진학률은 성서학과만 표기)

2. 취업률 비교현황

내용	2019년 71.6%	2018년 72.9%	비 고
전국 / 186개	25위 / 평균 63.3%	20위 / 평균 64.2%	전국 평균 ▼0.9%
수도권/ 70개	7위 / 평균 66.6%	6위 / 평균 66.9%	수도권 평균 ▼0.3%
서울 / 38개	6위 / 평균 67.2	3위 / 평균 67.1	서울 평균 ▲0.1%

- 2019년 평균취업률 전국 63.3%, 수도권 66.6%로 전년도 대비 각각 0.9%, 0.3% 하락함

- 서울 대학별 취업률 순위 :

1.성균관대 78.6%, 2.한양대 73.8%, 3.서강대73.7%, 4.고려대73.3%, 5.연세대72.5%, 6. 한국성서대 71.6%, 7.서울대 70.9% (이하 서울) 순

3. 유지취업률 비교현황

내 용	2019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본교 유지취업률	80%	79.3%	76.4%	▲0.7%
전국 대학	81위 / 평균 81.2%	72위 / 평균 79.8%	106위 / 평균 80%	▲1.4%

- 2019년 유지취업률은 전국 81.2%, 수도권 84.2%로 전년도 대비 각각 1.4% 증가됨

▲ 종합분석 :

취업률은 71.6%로 전년도 72.9% 보다 1.3% 하락하였으나, 전국 186개 대학 중 25위로 4년제 대학 취업률 71% 이상으로 전국대학 상위 13%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지취업률(4차)은 전년대비 0.7% 상승 하였으나 전체 유지취업률 상승으로 약 81위 (상위 43%)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대학 취업률은 낮아진 가운데, 청년고용 불안 등의 요인으로 유지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본교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첫 해외취업자(1명)와 프리랜서(8명)가 다소 증가한 특징을 보이며, 영유아보육 전공은 전년도 100% 이어 97.6%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임.

인문계열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본교 사회복지학과는 0.7%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유지취업률 또한 전년도보다 6.3% 상승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로 분석됨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청년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해 복지·보건 분야, 공공분야의 채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본교 전공 특성상 좀 더 분발하고 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취업지원에 노력한다면 본교 졸업자들의 취업률 성과는 다시 반등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 됨.

- 2021. 1. 12 취·창업지원센터 박성범